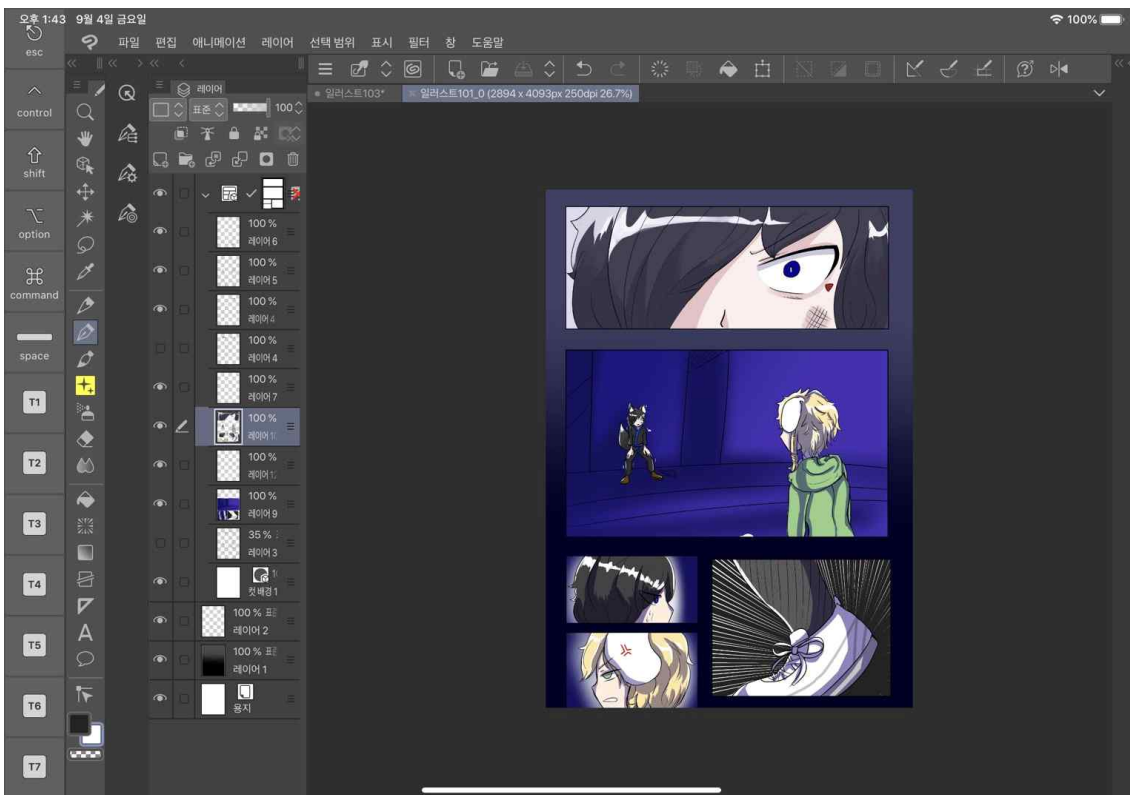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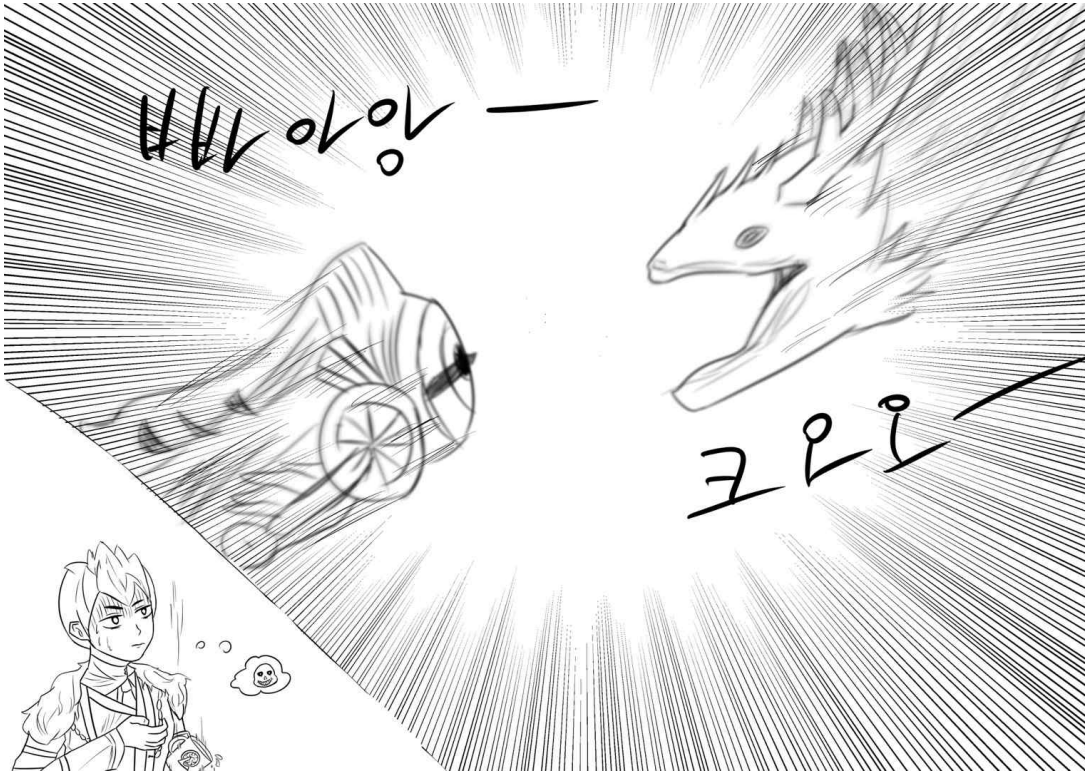


이때까지의 작업물들.

여러 가지에 도전해보려 했으나, 통일되지 않은 직관성, 계속 바뀌는 마음, 처음 시도해보는 경험력의 부재로 실패한 듯 하다.



??? 재로그
원복 VS 권아솔
4R 1:1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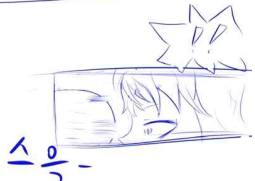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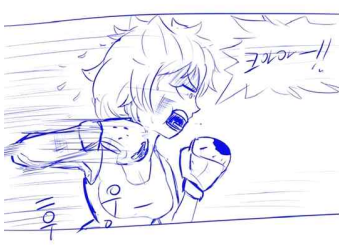
— 펍



— 퍼익



배아악!



걱정하지 마! 그 '지킴'은 둘 방법은 있으니까

